



군산시는 유소년 축구스타의 등용문인 2023년 금석배 전국 중학생축구대회가 10일부터 13일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사진=군산시청 제공)

# 금석배 중학생축구대회 오늘부터 13일간 '대장정'

고학년 40·저학년 23개팀 출전... 도내 참가팀은 FC 해성 등 총 9개팀

군산시는 유소년 축구스타의 등용문인 2023년 금석배 전국 중학생축구대회가 10일부터 13일간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전라북도축구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월명, 대야, 서군산, 금강, 어린이교통공원 등 5개 구장에서 실시

되며 중등부 총 63개팀(고학년 40개, 저학년 23개팀)이 참가한다. 도내 참가팀은 총 9개팀으로 U-15 군산시민축구단 FC 해성(전주), 고창 북중 김제DCT FC, 김제 FC, 완주 FC, 이리동 FC, 이령 FC가 참여한다. 시는 이번 대회에 맞춰 대회 종료 시까지 숙박·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방역관리를 실시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불편사항을 즉시 접수 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석배 축구대회는 전통이 있는 대회로 많은 유소년팀이 참여하는 대회"라며 "고등부는 오는 5월 경 초등부는 7~8월 경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벤투 후임 콜롬비아 상대 데뷔전, 내달 24일 울산서

내달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서 한 차례 더 A매치... 상대는 미정

파울루 벤투 감독 후임의 A매치 데뷔전이 될 콜롬비아전이 다음달 울산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콜롬비아와 A매치 1차전이 3월 24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울산에서 A매치가 열리는 건 2019년 3월 볼리비아전(한국 1-0 승) 이후 처음이다. 콜롬비아전은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을 이끈 뒤 결별한 벤투 감독 후임인 새 감독의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협회는 3월 A매치 이전에 새 감독 선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FIFA 랭킹에서 17위에 올라 있다. 한국(25위)보다 8계단 높다. 카타르월드컵 남미 예선에선 6위에 그쳐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역대 전적에선 7차례 만나 한국이 4승2무1패로 앞서 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인 2019년 3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선 한국이 손흥

민(토트넘), 이재성(미네르스)의 골로 2-1 승리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네스토 로렌조 감독이 지휘하는 콜롬비아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울림피아코스), 다빈손 산체스(토트넘), 루이스 디아즈(리버풀), 후안 파드라노(유벤투스) 등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이다. 두 번째 경기는 다음달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상대는 미정이다. 협회는 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협의 중이다. /뉴시스

## 마사고 U-19 베이스볼클럽, 힘차게 출발

내년부터 고교야구 주말리그 등 출전

고교 야구에 참가할 '한국마사고 U-19 베이스볼클럽'이 9일 발대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전북 장수군에 자리 잡은 베이스볼 클럽은 한국마사고와 연계한 단일화 클럽으로 장수군야구소프트볼협회 산하단체로 등록돼 장수군 내 야구장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 한국마사고 U-19 베이스볼클럽 창단으로 전북에는 군산상고와 인성고, 전주고 등 4개 고교가 야구단을 운영하게 된다.

한국마사고 U-19 베이스볼클럽은 현재 고교 1학년 7명 영입을 마친 가운데 중학교 10명 선수가 내년에 입단을 할 예정이다. 고교 1~2학년생을 추가 모집 후 훈련에 돌입해 내년도부터 고교야구 주말리그 등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야구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국마사고 U-19 베이스볼클럽은 젊은 코치진으로 꾸려 도내 고교



고교 야구에 참가할 '한국마사고 U-19 베이스볼클럽'이 9일 발대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야구 활성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 진북초와 전라중, 전주고 등의 대 출신인 박대희 감독과 정용운 코치가 원년 지도자로 클럽을 이끈다. 정용운 코치는 선린중과 중앙고를 나와, 프러팅 기아타이거즈의 2009년 우승 멤버로 활약했다. 이들은 각 포지션 전문 코칭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실력을 쌓아 명

실 공히 참예기에 빠진 전북 야구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각오다. 박대희 감독은 "단순히 프로리그를 목표로 하는 선수도 있지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엔 시간과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베이스볼 클럽을 통해 야구의 꿈을 가지고 운동하는 선수들을 잘 이끌어 훌륭한 재목으로 키워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 화려한 태권 퍼포먼스에 '들쭉'

올 태권도원 상설시범공연 '원' 오늘 공개... 본격 개막

매년 새로운 스토리와 음악, 퍼포먼스의 태권도 상설공연을 선보이며 방문객의 발길을 끌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은 10일 태권도원의 대표 콘텐츠인 태권도 상설공연의 2023년도 작품 '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권도 상설공연 '원'은 앞서 1월 중반 공개 이후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보완작업을 거친 완성작으로 지구촌 오대륙을 상징하는 오륙기 색상에 맞춘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검은색은 고난도의 태권도 격파, 노란색은 창작 품새, 파란색은 태권도 호신술, 초록색은 K-POP 태권댄스, 붉은색은 익스트림 태권도로 구성으로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태권도원 상설 공연은 동절기인 1월부터 3월 11일부터 12월은 금요



매년 새로운 스토리와 음악, 퍼포먼스의 태권도 상설공연을 선보이며 방문객의 발길을 끌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은 10일 태권도원의 대표 콘텐츠인 태권도 상설공연의 2023년도 작품 '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 1회(오후 2시), 주말·공휴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공연이 운영되며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은 주중(화~금) 1회, 주말·공휴일 2회 공연,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은 주중 및 주말·공휴일 모두 2회씩 운영된다. 오용환 이사장은 "상설공연은 태권도의 매력을 모두 담은 대표적인 K-컬처의 정수"라며 "앞으로도 태

권도를 통한 문화 관광지로서의 명성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통해 태권도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련한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태권도원 블로그 및 태권도원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우주=전문선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